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實效'

14개 초등학교 1200여명 대상 실시... 아동기 사회복지 마인드 개선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가 지난해 실시한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는 등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연계해 지난해 14개 초등학교 1205명을 대상으로 '행복과 사회복지의 이해',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 '자원봉사활동의 의미와 필요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 실시 이전과 이후에 같은 문항을 가지고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는 질문에서 교육 전에는 497명(48.2%)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으나, 교육 이후에는 801명(75.1%)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노형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복지교육을 받은 뒤 수료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애인과는 친구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교육 전에는 432명(41.9%)에 불과했으나 교육 후에는 706명(66.2%)으로 늘어 복지교육이 초등학생들에게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심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것이다'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이 378명(36.6%)에서 602명(56.5%)로 224명(19.9%p) 증가해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을 받은 한 학생은 "사회복지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각이 하나씩 바뀌었다"면서 "기회가 되면 사회복지에 관해 더 자세하게 배우고 싶다"고 했다.

교육을 담당했던 강사 전해숙씨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올바르게 성숙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면서 "초등학생들이 건강한 청소년기를 맞이하기 위해 감수성이 풍부한 어린 시절 사회복지에 대한 교육과

체합의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아동기 사회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배려와 존중, 나눔을 통한 인간중심의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자세와 역할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에도 초등학생 복지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찾아가는 초등학생 복지교육 2009 평가자료집'을 300부 발간, 교육청과 초등학교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일을 하고 싶어요"

여성결혼이민자 83% 응답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대부분은 경제활동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인력개발원이 도내 여성결혼이민자 10명과 외국인지원 관련 단체 실무자 2명을 심층면접하고, 여성결혼이민자 2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발간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 및 취업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3.3%가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경제활동을 희망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집에 혼자 있기 적적해서' 등으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취업에 대한 욕구는 강하지만 '서툰 한국어'(33.4%), '일자리 부족'(25%), '정보접근성 취약'(8.3%) 등에 의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희망직업으로 외국어 교사(31.3%), 사무직(25%), 통역 및 가이드(12.5%) 등을 꼽았다.

지면소개

- 종합 2 · 3면
희망근로사업 신청 폭주
시설 탐방·소망요원
- 사회복지소식 4 · 5면
장애인여행 길라잡이 발간 · 소식마당
영평초 다도봉사대 활동논길
- 오피니언 6면
칼럼 · 시론 · 기고
- 특집 7면
사회작가집 심포지엄

Banana Ad

바나나애드

본사 : 제주시 이도2동 1058-12 한화빌딩3층
공장 : 제주시 오라1동 1292-3

☎ 064.753.7482~3

☎ 064.753.7487

@ http://www.bananai.net

www.webhard.co.kr id/pw : bananaj

Design : 디자인
Interior : 인테리어
Digital Printing : 실사출력, 인쇄
Sign : 싸인
Outdoor Advertising : 옥외광고

희망근로사업 참여 '좁은 문'

신청마감 결과 848명 모집에 3096명 지원 3.65대 1

모집인원 감소·고용시장 악화로 일자리 부족 여파

제주도내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희망근로사업에 신청자가 폭주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2010년도 희망근로사업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848명 모집에 3096명이 지원, 3.6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가 509명 모집에 1888명, 서귀포시가 339명 모집에 1208명이 각각 신청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신청자 가운데 절반을 넘는 52.5%(1624명)를 차지했으며, 60~64세 19%(591명), 50대 17.4%(538명), 40대 7.2%(223명), 30대 이하 3.9%(120명) 순이다. 남자는 956명, 여자는 2140명이 신청했다.

이처럼 희망근로사업 신청 경쟁률이 높아진 것은 지난해보다 모집인원이 크게 감소한 데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맞물려 도내 고용시장 악화에 의한 일자리 부족 현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로 풀이된다.

신청자 접수 마감 결과 6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지난해 42%보다 급증한 71.5%(2215명)에 달해 노동강도가 높은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시설물 개·보수 사업 등에 제약을 주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산·소득심사를 철저히 하는 것은 물론 사업별 근로능력 심사를 강화해 사업 취지에 적합한 참여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는 1일 3만3000원을 급여로 받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급여의 30%는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희망근로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제주도, 자활·생활안정기금 용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지원을 위해 1/4분기 지원대상자를 오는 12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대상은 자활기금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근로사업단이다. 용자금 액은 7000만원 이하로, 점포전세자금에 한한다. 생활안정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전세자금 또는 창업자금 용도로 지원된다. 용자금 액은 2000만원 이하이다. 이율은 금융권 대출이자보다 낮은 2.5%이다.

신청은 각 읍·면·동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창업자금 1000만원, 주

택자금 2000만원까지는 행정 시에서, 창업자금 1000만원~2000만원까지는 제주도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와 자활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말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활기금과 생활안정기금은 2007년부터 무담보·무보증으로 시행해 지금까지 78건에 8억1800만원을 용자 지원했다.

제주도는 올 상반기 중 점포전세자금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주택자금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조례를 개정, 저소득층에게 보다 나은 자활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갈 방침이다.

장애인 교통비 지원 통합

제주시는 중증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금과 교통이용권으로 이원화돼 차등 지원하고 있는 교통비를 올해부터 통합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설입소자와 차량보유자를 제외한 1급 중증장애인 1인, 2급 신장장애인, 2급 시각장애인에게 월 2만5000원이 지급된다.

지난해까지 교통비는 월 2만원, 교통이용권은 월 3만6000원씩 지급됐으나, 읍·면지역에 살고 있는 장애인의 경우 교통이용권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불편을 겪어왔다.

제주시는 교통비 지급대상자에 2급 시각장애인이 추가돼 대상자가 400여명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초수급자·장애인 등 과태료 절반으로 줄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됨에 따라 1월 16일부터 기초수급자 등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50% 감경됐다.

과태료 감경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 1~3급 장애인, 상이등급 1~3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이다.

과태료를 감경 받으려면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일 전까지 질서위반행위자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

제주도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이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사랑나눔 유자차 만들기

제주도여성자원봉사센터(회장 김옥랑) 회원들이 1월 21일 불우이웃 돕기 성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유자차를 만들고 있다. 회원들은 2000년부터 유자차를 만들어 일반인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저소득층 학생 급식비 지원 등 불우이웃돕기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제주도, 사회복지기금 운용 '우수'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해 실시된 사회복지 관련 5개 기금 성과분석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방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은 사회복지기금, 법정기금, 자체기금으로 나뉘어 매년 번갈아 실시되고 있는데, 이번 평가는 2008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에 대해 4개 분야 12개 지표별 자체 분석 및 미흡사항 이행실태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로

통합된 이후 불필요한 기금 폐지 및 유사기금의 통합과정을 통해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금운용에 효율성과 적절성을 추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07년부터 여성발전기금의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4개 항목에 대한 '사업추진단체 평가제'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여성단체의 역량강화를 유도하고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기여해 수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제주시, 조손가정에 수당 지급

제주시는 올해부터 조손(祖孫)가정에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학습증진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조손가정은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다. 생활실태에 따라 손자녀와 조부모 모두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1층과 손자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조부모가 저소득(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미만)인 2층으로 구분한다.

1층의 경우 아동의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손가정아동학습수당으로 세대당 월 3만원이 지원된다. 2층에는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손가정수당으로 세대당 월 5만원과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남문지구대 자율방범대 장학금 전달

남문지구대 자율방범대는 1월 27일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 이용 아동 중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근면 성실한 모범 아동 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서귀포시, 제5기 가족자원봉사단 모집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소장 강은영)는 제5기 가족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다음달 8일까지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nanum.seogwipo.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gd744111@naver.com)이나 팩스(732-0282)로 접수하면 된다.

제5기 가족봉사단은 3월 발

대식 및 기본교육을 시작으로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 등과 나들이 봉사, 관내 복지시설 봉사활동, 자연보호활동, 장애체험과 안전체험학습 등 4월부터 11월까지 다양한 봉사활동에 나선다.

12월에는 가족자원봉사단 봉사활동 평가회를 통해 가족자원봉사단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서귀포시 가족자원봉사회'를 결성, 지속적으로 가족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시설탐방

(27)소망요양원



어르신에 맞춘 소통 주력

2004년 4월 제주시 구좌읍에 자리잡은 소망요양원(원장 박무열), 겨울의 끝자락임을 알리는 듯 겨울바람이 차갑게 부는 날,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는 요양원을 방문했다.

지역사회 연계사업 중점 추진

소망요양원은 어르신들을 위해 내 집같이 따뜻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보건, 재활, 케어, 상담, 프로그램 진행 등 어르신의 욕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소망요양원은 1월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2등급으로 판정받은 어르신 72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요양원의 운영방침을 묻자 박무열 원장은 “한 마디로 요약해서 ‘결언(乞言)’”이라고 말했다. “어르신에게 지혜의 말씀, 좋은 말씀을 해주시도록 가르침을 구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여쭙고 부탁하고, 또 고마움을 말로써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소망요양원은 올해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 노인들에 대한 의식고취와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물론 지역주민과 함께 호흡하는 요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접적이며 적극적인 지역사회 연계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빨래방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연계사업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이동빨래방은 김녕리에 거주하는 혼자 사는 노인 중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를 선정, 빨래를 해드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목욕과 이·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독거노인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지역주민 등과 이웃 노년세대의 고통을 나눔으로써 더불어 사는 이웃사랑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재활치료실과 운동기구실을 지역 어르신들에게 개방하는 등 지역사회를 향한 복지를 실천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중 하나인 여름나들이 프로그램은 지역 건설회사로부터 물품 등



을 후원받아 요양원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담지쉼터’로 나들이를 하는 프로그램. 주로 요양원에서만 활동하는 어르신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출의 기회를 갖고, 요양원 생활로 인한 무료함과 갑갑함을 해소하며 삶의 활력소를 찾는다.

박 원장은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은 귀한 일이라서 그만큼 자회 역할이나 어르신들을 향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어르신들 향해 온 마음을 열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지역사회의 우수기관으로 인정을 받고 싶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손을 맞잡고, 지역사회를 향해 열려있는 요양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자 명예기자〉

제주도, 사회복지 일자리 6190개 창출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사회복지분야에서 619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9개 분야에 224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분야별로는 여성분야에 6억 4700만원을 투입해 8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노인분야에는 40억 7400만원을 들여 2100여명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또 장애인분야에는 48억 1500만원을 투입해 행정도우미와 활동보조지원 등 124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저소득층 자활지원에 66억 1300

만원을 들여 13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동분야 66명(7억 1200만원) ▲보육분야 24명(2억 3400만원) ▲다문화가정 가족지원 107명(4억 4400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517명(44억 2000만원) ▲노인요양시설 22명(4억 8600만원) 등이다.

이경희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 삶의 질을 높여나가고 자활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본격 가동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을 본격 가동했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지자체 공무원들의 복지행정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정보시스템으로,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120여개의 복지급여와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가구별로 통합 관리한다.

제주도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가동으로 복지대상자 선정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

적으로 이뤄지고, 도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누락되지 않고 제공되는 등 복지행정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희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맞춤형 서비스로 가는 새로운 시스템”이라며 “공무원들이 직접 어려운 도민들을 만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진정한 사회복지로 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 고용하면 월 20만원 지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중인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사업이 계속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를 대상으로 올해에도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사업자와 노인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월 15일 이상 근무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 임금이상 지급조건을 지켜야 한다. 월 보수액은 최저 50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에 한해 1인당 월 20만원씩 사업체당 5명까지 지원된다.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해 2개월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매월 10일까지

사업장이 있는 읍·면·동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용자와 고용자간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사촌이내의 혈족관계(배우자 포함)인 경우와 공공기관, 공기업, 정부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제주도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민간분야 노인고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도는 2007년 노인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시행해 같은 해 32개 업체(57명)에 1억원, 2008년 57개 업체(94명)에 2억원, 지난해 86개 업체(154명)에 2억 8000만원 등 175개 업체(305명)에 5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사회복지협의회의 2009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60,000	76,000
난치병환아후원	110,000	0
자원봉사후원	2,060,000	2,060,000
복지사업후원	2,050,000	340,730
푸드마켓후원	3,055,000	5,000,00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제주여행 길라잡이 '해피누리' 발간

관광지·숙박시설 등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부산복지관과 장애인관광복지사업 컨소시엄 협약도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이 제주를 찾는 장애인관광객들이 원하는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 제주여행 길라잡이 '해피누리'를 펴냈다.

해피누리는 자체 개발한 16종의 픽토그램을 활용, 도내 관광업체별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장애인 지원서비스, 장애인 이용요금 및 할인율, 관광지 추천대상을 비롯해 이용 및 관람효과 등을 안내하고 있다.

또 '민-민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통해 해피누리와 업무협약이 체결된 관광지, 숙박시설, 음식점을 비롯해 직영 관광지 등 총 74곳에 대한 장애인 관광정보를 담고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바코드를 삽입, 보이스아이를 통해 시각장

애인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자는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시설, 특수학교 등 전국의 700개 기관·시설·단체 등에 배포됐다. 해피누리 홈페이지(<http://www.happynuri.or.kr>)를 통해 상시 열람이 가능한 디지털북으로도 출판될 예정이다.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책자 발간으로 장애인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정확한 관광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장애인들이 어려움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1월 21일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구철



△장애인제주여행 길라잡이 '해피누리' 책자 표지(왼쪽)와 장애인관광복지 공동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식.

수파 장애인관광복지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장애인관광복지사업 전개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이다.

협약에 따라 서귀포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여행상품 개발 및 서비스 제공 ▲지적장애인 대상 관광서비스 전문과정 교육·훈련(관광가이드, 관광안내도우



미, 클린서비스요원) 노하우를 부산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전수하게 된다.

복지관 관계자는 "2009년 장애인관광복지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운영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첫 발을 내딛은 만큼 각 지역별로 장애인관광복지사업 공동사업수행기관 컨소시엄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소영 명예기자〉



‘농산물 건조사업’ 스타트

일배움터, 중증장애인 자립 기대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직업재활을 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농산물 건조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2억500만원을 지원받은 일배움터는 제습건조기 설치와 작업장 증축 등 설비사업을 마친 뒤 지난해 12월 제주월동무말랭이 생산을 시작했다.

일배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동부농업기술센터의 제습건조방식을 도입, 무말랭이와 건조감귤 등 건조농산물 샘플작업을 통한 우수한 품질의 상품생산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서귀포복지관 경로식당 운영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1999년 10월부터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저소득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경로식당은 도내 80여개의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매주 월·수·금요일 서귀포시노인복지관에서 운영되며, 매회 2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다.



눈썰매 등 방학프로그램 운영

해정원아가의집

해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각 학교의 겨울방학을 맞아 겨울철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사회적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주 1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가의집은 눈썰매타기, 생활 속 과학탐험, 트리아트뮤지엄 체험, 겨울철 전래놀이 등 다양한 활동으로 시설 생활인들과 지역사회 주민들과 함께 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소/식/마/당

道노인보호전문기관 5주년 기념식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지난해 12월 23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 5주년 기념식을 갖고 기관 발전에 기여한 이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또 제2기 빛누리실버연극단은 이날 '마지막 선물' 특별공연을 마지막으로 연극단 활동의 대미를 장식했다.

삼성에스원 · 현대차서비스 물품전달



삼성(주)에스원 제주지사(지사장 오만식)는 지난해 12월 19일 해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을 방문,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여가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현대자동차(주) 제주서비스센터(센터장 오정환)도 지난해 12월 24일 해정원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찾아 생필품을 증정하고 다과를 함께 했다.

사랑하는 사람들 발표회 개최



가롤로의집은 12월 24일 성가정노인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사랑하는 사람들 발표회 및 황사평 성탄예술제'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서 가에탈춤패는 신명나는 뛰어난 춤사위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으며, 제주해덕의집과 성가정노인복지센터, 일배움터가 함께 어우러져 합창과 탈춤 등 다채로운 공연을 펼쳐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새해맞이 겨울캠프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틀간 명도암유스호스텔에서 도내 위탁아동 중·고등생들과 대학생 자원봉사자 등 40여명과 함께 새해맞이 겨울캠프 '우리들의 희망스토리 1박2일'을 실시했다.

이번 캠프는 모듬활동 등을 통해 사회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도청 존샘봉사회, 장담그기 봉사활동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회원 및 가족 20명은 1월 16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터를 방문해 메주씻기 및 장담그기 노력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된장의 기초 작업인 메주만들기에 이은 봉사활동으로, 존샘봉사회는 간장과 된장으로 분리하는 장가르기를 하는 4월에도 봉사활동을 계속하기로 했다.

사랑의 열매, 차량전달식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는 지난해 12월 22일 하귀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2009년도 차량전달식'을 갖고 도내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에 승합차 6대, 경차 7대 등 모두 13대의 차량을 전달했다. 제주 사랑의 열매는 취약기관들의 서비스역량을 키우기 위해 차량지원사업을 실시, 지금까지 총 123대를 지원했다.

영평초 다도봉사대 활동 '눈길'

어르신에 차 등 대접하며 사랑 전해

영평초등학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아이들이 자원봉사를 통해 다른 사람과 더불어 기쁨과 행복을 나누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 사회구성원으로써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7년부터 4~6학년 20명을 대상으로 학교봉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봉사대의 활동 중에서도 아이들이 다도교육과 예절교육을 받은 뒤 직접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방문, 어르신들께 차와 다식을 만들어 대접하며 따스한 사랑을 전해줘 눈길을 끌고 있다.

김예자(5학년) 어린이는 “처음에는 예절을 배우기 위해 다도를 시작했는데, 다도를 배우면서 다양한 차의 종류와 끓이는 방법들을 배울 수 있어 재미있다”며 “특히 제가 만든 차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다”고 말했다.

나주혜(5학년) 어린이는 “양로원에 방문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차 색깔이 예쁘고 향이 좋다고 칭찬해 줄 때 가장 보람있고 뿌듯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다도봉사대에 참여해서 더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다”며 미소를 지었다.



△영평초등학교 다도봉사대가 어르신들에게 차를 만들어 대접하고 있다.

송미경 선생님(지역사회교육전문가)은 “다도봉사대는 아이들이 다도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예의범절을 배우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기르며,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요즘처럼 핵가족화 되어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다”고 말했다.

다도봉사대는 올해 제주시각장애인주관보호 시설에 월 1회 정기적으로 방문,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스한 차와 다채로운 간식을 준비하고 있다.

〈양정선 명예기자〉

中企중앙회의 훈훈한 사랑나눔

제주에서 중소기업중앙회의 사랑나눔 봉사활동이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과 지역 회장단협의회 장춘상 회장 등 전국 12개 지역회장단 20여명은 1월 21일 사회복지법인 춘강을 방문해 1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증하는 등 중소기업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들은 이어 제주도수퍼마켓 협동조합(이사장 조병선)을 방문해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에 앞서 1월 15일에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제주케어 하우스에 500만원을 전달하



고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텔런트 등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성공을 돕는 사람들'의 송기운 회장과 현석, 김창숙, 김종석 등 연예인들이 참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우시설을 방문해 자원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성금과 물품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도1동장애인지원協발대

장애인 삶의 질 향상 노력

이도1동장애인지원협의회(회장 한재숙)는 1월 15일 이도1동주민센터에서 고봉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지원협의 회장, 신관홍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영미 이도1동장,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 및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발대식에서는 한재숙 회장과 회원들이 위촉장을 수여받았으며, 회원들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것을 약속했다.



강사모, 태양열 온수기 설치

아노제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지난해 12월 22일 전국 강남 태양열 대리점 사장들의 모임인 강사모(강남태양열을 사랑하는 모임)의 도움을 받아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했다.

평화·제주양로원, 전국 최우수시설 선정

평화양로원과 제주양로원이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무료양로시설 62 곳을 대상으로 2009년도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화양로원과 제주양로원이 최우수시설로 선정됐다.

이들 양로원은 주변 환경이 수려하고 시설 내·외부 청결, 입소자들의 건강을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장비의 보급, 입소 유형에 필요한 침실배치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시설의 재정운영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적정 구성, 예산·결산 투명성,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보급 통한 입소 노인들의 건강관리 및 재활, 지역사회와 연계한 정기적인 자원봉사 등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가슴뛰는 새로운 도전 청소년가족봉사단!

남편은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고 큰 딸은 고3이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울아들과 막내, 막내의 친구와 함께 그 동안의 봉사와는 다른 상호 교감이 이뤄지는 봉사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약간의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제주애덕의집의 '청소년가족봉사단'에 신청한 뒤, 설레고 긴장된 마음으로 애덕의집을 방문했습니다. 낯선 환경에 어색했고 새로운 도전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결연을 맺은 장애인 A씨와 첫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선생님의 안내를 받고 그를 찾아가는 짧은 시간동안에도 소리지르고 떼쓰는 어른들을 보며 걱정이 앞섰습니다. 아무 표정없이 다가와서 우리를 뚫어져라 쳐다보거나 딸아이를 건드리며 지나칠 때는 심장이 쿵다거리며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방 친구들이 물려와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그때 우리에게도 위협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움찔해하는 아이들을 보며 걱정이 앞섰고 괜히 시작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낮섬을 숨기고자 그들과 친한척하며 크게 얘기하고 크게 웃으며 서로 손잡는 등 오버액션을 했어야 했습니다.

만남이 시간이 늘어가면서 우리 가족은 A씨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해 주고 싶었고, A씨가 밝게 웃어주길 바랬습니다. 움츠리지 않고

가만히 서서하는 농구를 배웠고, 풍선놀이하다 풍선이 터져 깜짝 놀라는 A씨의 또 다른 표정을 보았고, 구슬 꿰기에 집중하는 A씨의 집중력은 아무도 따라갈 수 없었고, 탑동에서 자전거 탈 때에는 여자 둘만 가서 잡아주는 힘이 없어서 아쉬웠했고, 산지천의 중국 배에 올라 타이타닉 흉내도 내보고, 주차해 놓은 많은 차들 중에 우리 차를 기막히게 찾아가는 A씨의 푹푹함에 우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손가락이 굵아 미국식 욕을 하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던 A씨. 병원에 가서 수술해서 금방 좋아졌었지만 통통 부어 올라 손가락이 얼마나 아팠을까? 아들보다는 딸아이와 친구에게 살인미소를 날렸던 A씨가 아들과 함께 목욕한 후에 급호감을 가졌는데 이들을 계속 사랑하게 내버려둬야 될지...

'아저씨'라 불러주면 하얀 이를 드러내며 미소짓는 A씨. 신종플루로 못 만났던 몇 개월간 우리를 잊지는 않았을까 걱정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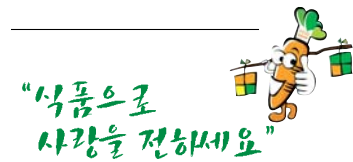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감을 '배운 것 보다 훨씬 더 많이 얻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식적인 멘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부끄럽게도 내가 그 가식적이라 생각했던 멘트를 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제주애덕의집 청소년가족봉사단 이경미〉



아동권리증진 권기대회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1월 15일 한라산 어승생에서 제남아동복지센터(원장 이상준)와 함께 '아동권리증진 권기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제남아동복지센터 아동들과 서귀포 관내 학대피해아동들이 참여해 단체활동을 통해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1월식품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산방미곡=쌀 60kg ▲서문식품=두부 384모 ▲제주특별자치도수퍼마켓협동조합=사과 13상자 ▲김치원=김치 122kg ▲제주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간장 5상자, 식용유 7상자 ▲탐라상사=바나나 4상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70만원 ▲고용범=김 2상자

칼럼

장애가 일궈낸 웃음의 미학



김길웅
수필가·시인

사회복지법인 ‘춘강’이 운영하는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임경윤 회장이 첫 수필집을 냈다.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등단 5년 만의 값진 결실이다.

수필 접한 뒤 절망에서 벗어나

그는 척수장애인으로 휠체어에 몸을 싣고 다닌다. 20여 년 전에 돈을 벌기 위해 일본에 갔다가 작업장에서 변을 당해 그렇게 된 것이다.

한때 방황 속에 절망의 수렁에 빠져들었으나 이내 자신을 일으켜 세웠다. 재기를 위한 그의 몸부림은 처절한 것이었다. 장애가 걸음걸음 자신을 가로막아 섰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의

행보는 거침없고 집요했으며 굳건했다. 장애인복지 쪽의 일치고 그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없다 할 만큼 그는 바지런했다. 지체장애 인협회 중증장애인 부장, 장애인 협회 감사, 척수장애인 골수회 회장, 장애인 볼링협회 상임부회장, 이어도 볼링클럽 회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이다. 창립 이래 6년째 회장을 연임하면서 회원 20명이 넘는 작지 않은 문학단체를 옹골차게 이끌어 온다.

그는 그렇게 수필과 조우했다. 읽고 쓰고 정서법을 공부하고, 수필에 몰입했다. 글쓰기에 쏟아 온 그의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는 그 새 써놓은 작품만 봐도 안다. 2005년 가을에 등단해서 지난해 말 수필집을 상재할 때까지 무려 140편에 이르는 수필을 쓴 것이다. 놀라운 일이다. 앉아서 글쓰기만 한 것이 아니다. 여기저기 쉴 새 없이 뛰면서 그 많은 작품을 썼음에다.

수필을 이끌고 있는 것은 집념만이 아니다. 그의 영혼이다. 그래서인가, 수필을 만난 뒤로 그는 무척 밝아졌다. 눈과 입가에 늘 웃음을 달고 다닌다. 좌절을 딛고 절망을 뿌리친 것이다. 그의 정신

은 종교처럼 강하고 엄숙하다.

그런 몸으로 귀국한 후 아내와의 이혼이라는 고통을 겪어야 했던 그가 인생의 새 반점을 만난 것도 행운이었다. 그는 그녀를 ‘현아씨’라 부른다. 휠체어를 밀고 다니는 어여쁜 여인.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그가 있는 곳엔 반드시 그녀가 있다. 아름다운 인연이다. 이따금 그들 부부를 바라보며 인생의 의미를 곱씹곤 한다.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죽음함이 있으면 살기 위해 노력하라. 그래도 힘들면, 밀항선을 타고 일본에 가서 허리가 꺾어져 보고 아내와 이혼도 해 보라. 그러면 진짜 고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앞에서 힘들어 죽겠다는 푸념 섞인 말을 할 때 내뱉는 그의 대답은 냉혹하다.

그는 줄곧 수필을 쓴다.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머리에 컴퓨터를 받고 앉아 구상해둔 소재 하나에 매달려 있으리라. 그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 비록 휠체어 신세지만 그의 정신은 단단하다.

수필집 이름을 되뇌게 된다. 그에게 시련은 있어도 좌절은 없다.

시론

맞춤형 복지 위한 ‘행복e음’ 과제

도내에서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 정보시스템이 1월 4일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다. 기존 ‘새울 행정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을 전면 개편해 21세기에 걸맞는 새로운 복지서비스체제를 열고 있는 것이다. 복지수요자가 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 발짝 다가서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기대는 그만큼 높다.

그동안 운영됐던 새울행정시스템에 의한 복지서비스 제공은 기관별로 제각각 이뤄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기초급여, 노인, 장애인, 보육, 소년소녀가정 등 분야별 사업들이 담당부서 개별적으로 이뤄졌다. 또한 읍·면·동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수급자 여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해 상담, 급여집행 업무까지 맡으면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기도 했다.

투명한 시스템 도입 가치 잊지 말아야

이 때문에 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질은 기대하기 힘들었다. 오히려 기관별로 따로 따로 자료를 수집해 관리하면서 중복지원 사례가 나타났다. 일부 공무원은 보조금집행을 장기간 말으면서 복지급여를 가로채거나 횡령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늘어나는 예산만큼 복지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면서 불신만 쌓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주도는 ‘행복e음’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행복e음’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수급자와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축된 통합관리망이다. 그만큼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행정은 하나의 담당부서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조사·관리·집행을 일괄적으로 할 수 있어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오게 됐다. 수급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편리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이에 맞춘 행정시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했다. 그동안 읍·면·동에서 담당했던 수급여부 조사사업무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관리담당으로 일원화했다. 반면 보조금 횡령 등의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와 급여집행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업무량이 줄어든 읍·면·동 복지담당은 상담 등 찾아가는 민원서비스에 주력할 수 있다.

이를 볼 때 ‘행복e음’ 시스템의 진기는 대단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복지서비스 관리망 교체과정을 거쳤지만 이번만큼 투명하고 편리하고 체계화된 관리망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 하나로 부정수급을 비롯해 보조금 착복 등의 문제까지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이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잦은 오작동 및 접속 장애 등으로 1월 수급자 급여 집행에도 일부 혼란이 발생했다. 읍·면·동의 업무량이 그렇게 줄어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는 시행 초기 과도기에 따른 문제점으로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다. 만약 한 사람이라도 올바르게 못한 생각을 한다면 아무리 투명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좋은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복지 공급자, 수요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완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기고

제주사회복지신문 명예기자 활동을 마치며



현경애
제주케어하우스사회복지사

2007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제주사회복지신문’ 창간과 함께 사회복지 관련 취재활동 등을 통해 제주사회복지신문을 이끌어갈 명예기자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봤다. 별 생각 없이 보고 넘겼는데 며칠 후 ‘명예기자를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국장님이 권유했다. “글 솜씨 없는 거 알면서 별 말씀을…”이라고 대답했는데, 글 쓰는 것도 배우고, 도내 사회복지가 어떻게 돌아가나 알기도 하고 사람도 사귀려는 강력한 권유에 접수 마지막 날 못 이기는 척 신청서를 접수했다.

경험이 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글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하면서 배

우면 되지’ 하는 생각에 지원을 한 것이다.

접수하고 며칠 후 기자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협의회 회의실에 모여 위촉장을 수여받고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내가 기자라니’ 아무리 생각해 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비춰보았을 때 기자라는 수식어는 나와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전혀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 기분이다.

명예기자 활동은 한 달에 한번 모여 다음 달 신문에 어떤 기사를 실을 것이며, 누가 어떤 기사를 쓸 것인지 회의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로 푸드뱅크 후원기업 소개, 시설탐방 및 행사 등의 취재기사가 우리가 써야할 분야였다. 그렇게 각자의 역할이 정해지면 취재를 나가고 기사를 작성한다. 활동 자체는 그다지 어렵거나 힘들지 않았다.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어색했던 사이도 어느새 정이 들어 모이면 수다가 늘기 시작했다. 전달 취재 갔었던 이야기며 요즘 어떤 일들이 있는지,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매번 이야기가 그칠 줄을 모른다.

회의가 끝나면 가끔 식사자리를 통해 회의시간에 못 다한 이야기도 나누고 말이다. 한 달에 한번, 하나의 기사를 쓰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되긴 했지만 활동만큼은 즐거웠다.

명예기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만남’이라 생각한다. 사람을 통해 배운다는 말처럼, 내가 했던 일보다 함께 했던 사람들이 먼저 떠오른다.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활동을 하면서 즐거웠고, 정말 유익하고 뜻 깊은 시간들이었다.

그렇게 2년 6개월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다. 기대만큼 잘 해왔는지, 열심히 해왔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 한해를 마감하며 명예기자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명예기자 활동을 마무리하는 것이 많이 아쉽기는 했지만 내게 주어진 짐을 하나라도 내려놓는다는 생각에 훌거운 마음도 약간 있었다.

제주사회복지신문이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신문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며,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고 소중한 경험을 제공하는 명예기자활동이 지속되고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

■ 아이디어로 꿈꾸는 공동체 사회적기업 심포지엄

“사회적기업 발전 지방정부 노력 절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지역자활센터협회, 성공회대학사회적기업센터는 1월 14일 농어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이디어로 꿈꾸는 공동체’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본지는 발제자로 나선 성공회대학사회적기업센터 김성기 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정리했다. 김성기 교수는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실천 전략’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시사점 및 과제를 민간의 사회적기업 운동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으로 구분해 제시했다.



△1월 14일 농어업인회관 대회의실에서 ‘아이디어로 꿈꾸는 공동체’ 사회적기업 심포지엄이 열렸다.

▲민간의 사회적기업 운동 차원

사회적기업은 대안경제를 구축하고, 복지국가를 혁신하는 새로운 조직이다.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발전과정에서 변화를 이끌어 가는 주역은 시민사회에서 태동해왔고, 지금도 그들은 주역이기도 하다. 사회적기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동인은 민간의 주체적 노력에 있다.

첫째, 지역사회 사회기업 운동은 사회운동적 노력과 결합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복지, 고용, 지역공동체 개발 등의 가치와 사회운동의 가치가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활동은 정책개발, 조사연구 등과 결합되어 추진될 때 더욱 설득력과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운동은 지역사회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

사회적기업 긍정적 발전 ‘민간 주체’ 역할 중요 지방정부 인큐베이터 역할로 취약기업 도와야 사회적기업 발전 위한 지원센터 등 설립 필요

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물론 네트워크 형성의 주체와 동력은 지역의 상황, 네트워크의 범위 등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시민운동이나 사회적 경제 운동의 기반이 풍족할 경우 네트워크는 더 풍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기업 경영자에 의한 코어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단순한 자원동원의 의미를 넘어서 커뮤니티와 사회적 네트워크에 의해 축적되는 ‘사회자본(social capital) 구축’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다.

또 지역 네트워크는 참여 단위의 필요와 욕구와 결합하여

운영될 필요가 있다. 지역네트워크가 사회적기업 영역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의 포럼, 교육사업 등이 진행될 때, 참여도와 영향력, 나아가 지속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기업 운동이 지방정부와 파트너십 전략을 형성하고자 할 때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기업 지원자를 육성할 수 있는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과제

사회적기업이 발전 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하고 필요하다.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을 위한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여 든든한 토대를 구축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첫째, 지방정부가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지역전략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국 브리스톨시의 경우 1990년대 후반에 지방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경제개발 프로젝트’를 수립해 ‘사회적기

업을 통한 5%의 고용 창출’이라는 총론적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경제, 컨설팅, 재정, 네트워크, 교육·훈련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둘째, 지방정부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 환경 조성자가 되어야 하고, 제도적으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 예산편성, 지원부서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복지, 교육, 환경 등의 공공서비스 영역은 사회적기업이 수행하는 비즈니스와 일치한다. 따라서 이러한 영역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방정부가 ‘일자리 지원 사업’ 분야에서 정책적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중앙정부의 경우 사회적기업의 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지원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물론 개별 사회적기업이 정부 사업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도 문제지만, 정책적 차원에서 개별 사회적기업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필요한 영역이다. 예컨대, 노동능력이 취약한 장애인 등에게는 지속적인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러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서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는 적극적 환경 조성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서비스와 공공재화의 구매와 관련된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보호된 시장’을 창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기업의 역량이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이를 위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기업 발전을 위한 협의체와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의 주요활동 주체는 공공과 시장이 아닌 제3섹터에 있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적 조직과 사회적 경제부분의 조직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이들의 창조적이고 도전적인 실험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민간에게 강력한 주도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의사결정권, 집행권, 재정권 등에서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방정부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는 지역사회 차원에서 사회적기업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기업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적 역할은 상당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잠재력을 지방정부는 인식하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정책 아젠다로 설정하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은 기존 사회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재생, 도시와 농촌 지역 간 협력을 통한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될 수 있다.



2010 庚寅年

謹賀新年

새롭게 밝아온
庚寅年の 새아침 !

그 간 베풀어 주신 關心과 配慮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